최후통첩 시한 임박, 파키스탄 중재에 V자 반등, 보합권 혼조 마감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중동 상황 관망, 장후반 2주 연장 기대감에 일부 반등 성공

- 미 증시는 DOW -0.18%, S&P500 +0.08%, NASDAQ +0.10% 혼조. 에너지, 기술주 강세, 소비재 약세
- 장전 미군의 이란 하르그섬 군사시설 공격 보도에 의해 약세였으나, 공격 추가 유예 내지 이란과의 휴전협상 기대 매수 유입, 보합권까지 낙폭 회복
- UBS는 S&P500 연간전망치 하향 조정. 반면, 아크인베스트 테슬라 주식 저가매수 행보
- WTI $108(-3.8%) 장중 $117.5까지 상승했다가 파키스탄 중재 보도 후 하락 전환
  금 +1.0% 중국 인민은행 금 매입 1년만에 재개, 달러인덱스 하락 영향. NDF 환율 1,500원선 하회

유예 종료시한 임박, 파키스탄 중재안 수용 여부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선제공격하며 오늘밤 문명 소멸을 경고. 에너지시설 및 교량 파괴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
- 이란은 미국과 직접소통을 중단, 중재국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입장. 영구 종전, 해협 주권 보전을 강하게 요구. 한편, 모즈타바 하메네이 2월 28일부터 의식불명 치료중 보도
- 장후반 증시 반등을 이끈 것은 파키스탄의 휴전 연장 중재안. 미국측에는 2주간 공격 중단 연장을, 이란 측에는 2주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안. 백악관은 관련 입장발표 준비중, 이란도 긍정적 검토 보도

물가와 경기에 대한 경계는 지속 양상

- 뉴욕연은 1Y 기대인플레 3.0→3.4% 12개월래 최고치. 3Y 3.1%, 5Y 3.0% 장기 인플레는 비교적 변동폭 제한
- 2월 내구재수주 MoM -1.4% 전월·컨센 하회. 내구재 제조업체수주는 +0.8%, 비국방 자본재수주 +0.8%
- 애틀랜타연은 GDP나우 1분기 추정치 1.6→1.3% 전주 이어 추가 하향
- 굴스비 총재는 전쟁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소비 위축 등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우려.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 방향히 명확치 않다고 언급. 반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미국 근원 인플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특징주: AVGO, 구글·앤트로픽과의 공급계약 소식에 상승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VGO	브로드컴	+6.2%	구글·앤트로픽과의 차세대 TPU 및 네트워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 알파벳과 '31년까지 차세대 TPU 개발 협력 및 네트워킹·AI 랙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 더욱이 앤스로픽에도 '27년부터 멀티 기가와트급 TPU 연산 용량을 공급하기로 합의
AAPL	애플	-2.1%	폴더블아이폰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니케이아시아 보도에 장중 주가 급락. 다만, 이후 애플 측의 9월 출시 일정 변동 없다는 입장에 낙폭 일부 만회
ORCL	오라클	-1.6%	미시간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핌코·BofA와 $14B 규모의 사모 채권 발행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 하락. 한편, 최근 자본 지출 확대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프라 전문가를 신임 CFO로 선임
UNH	유나이티드헬스	+9.4%	미 정부(CMS)가 '27년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지급 요율 인상 소식에 주가 강세. 지급률은 지난 1월 제시했던 0.09%를 크게 상회하는 평균 2.48% 인상안으로 확정. '27년 민간 보험사들에 약 $13B 이상의 추가 지급액 유입될 전망
ARM	ARM	-3.3%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비중유지'로 하향 조정함에 주가 약세. 다만 목표주가는 $135→$150로 상향됨